에너지관리공단, 중국 탄소배출권 진출

에너지관리공단이 중국 신·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한다.

에너지관리공단은 중국 더저우(德州)와 에너지절약과 신·재생에너지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4월21일 체결하고 ESCO 사업과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진출을 타진한다.

ESCO 사업은 ESCO(Energy Service Company: 에너지절약전문기업)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.

이와 함께 중국 국가에너지절약센터와 에너지절약환보그룹, 북경환경거래소 등을 방문해 양국의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<화학저널 2011/04/22>